

## “남은 삶 ‘찬불의 노래’에 바치오리다”

### 산문박의 文壇

#### 작곡가 김동환 교수

“불교음악, 일반음악이라 하는 이분법적 경계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음악은 어디까지나 음악일 뿐입니다. 우리가 편 의상 나누었을 뿐이지요. 찬불가 또한 음악적 완성도가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이 가사. 그리고 마지막이 신심을 일으킬 수 있는 감흥입니다. 찬불가의 음악적 수준이 높아지면, 불자들이 찾는 한 정된 불교음악으로서의 찬불가가 아닌 모든 대중으로부터 사랑받는 음악이 될 것입니다.”

중앙대 음대 김동환 명예교수(65세) 삼보불교음악협회 수석 부이사장은 찬불가의 공극을 이렇게 얘기했다.

김 교수가 작곡가로서 찬불가를 접한 것은 10년 남짓이다. 중앙대 음대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인 1990년부터이 다른 찬불가 작곡가들에 비해 늦게 찬불가 창작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찬불가 창작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 예순을 훌쩍 뛰어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대중에게 들려줄 찬불가 창작에 맞날 며칠을 오산지와 씨름한다.

올해만 해도 지난 4월 니르바나 실내악단 공연에서 선보인 ‘홍비니에서’를 비롯 내 한 생각 밭이 되어 ‘천지 만물 모든 생명’ 등 10곡의 찬불가를 만들어냈다. ‘음악은 나의 전권이자, 취미’라 말하는 그는 음악을 벗 삼아 평생을 살아왔다.

김 교수는 지난해 말 서울 중로구 계동 자신의 자택이 있는 현대아이빌라 1층에 ‘소천음악연구소-지봉위의소’라는 특별한 공간을 열었다. 지봉위의소란 이름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곡인 프랑스 작곡가 바리우스 미오가 지은 관현악곡의 제목을 따서 지었다. 김 교수가 사재를 털어 마련한 이곳은 찬불가와 우리 가곡을 사랑하는 이들의 사랑방으로, 이미 음악인들 사이에 입소문이 자자하다.

김 교수는 지난 2월 정년 퇴임이후 그의 작업실이자, 음악 감상실인 소천음악연구소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낸다.

오전 8시 30분경 연구소에 내려와 잠자리에 드는 밤 12시 30분까지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음악을 떠나서는 이뤄지지 않는다. 찬불가 작곡에, 그의 주특기인

가곡도 작곡하고, 또 틈틈이 음악관련 책도 읽고, 좋아하는 연주자들의 음악연구 소 한쪽 방에 그가 평생 수집해 온 클래식 앨범 8천여장이 소장돼 있다도 감상하노라면 하루가 모자랄 지경이다.

김 교수는 일주일에 한번 후학들을 위해 중앙대에 작곡지도 강의를 나가거나, 가끔은 화현동 지하 레코드 상가로 희귀 음반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그가 수석 부이사장으로 몸담고 있는 삼보불교 음악협회 회의도 이곳에서 열린다. 종종 찾아오는 후배나 제자들의 방문도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김 교수가 처음 작곡한 찬불가는 대령스님의 계송에 곡을 붙인 선법가 ‘빈손’과 ‘임의 소식’이다. 이후 김 교수는 본격적인 찬불가 창작에 매진하게 된다.

대령스님을 통해 찬불가와 인연 맺으면서, 제2의 음악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무늬만 불자였지

요’라고 말하는 그는 당시 일반 법회 등에서 불려지던 찬불가를 듣고 너무 놀랐다고 한다. 수준 높은 찬불가들도 있었지만, 찬송가를 본준 수준 미달의 곡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자신의 음악 인생에 ‘찬불가 창

### 대행스님 계송 ‘빈손’ ‘임의 소식’ 작곡 첫인연

### 명상 통해 작품 구상...환희심 선율로 표현

### BBS찬불가 발전 5개년 계획에 주도적 참여



◀김교수가 문물연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의 사랑방 ‘소천음악연구소-지봉위의소’.

작’이라는 회두를 든 그는 91년부터 불교방송이 추진한 ‘찬불가 발전을 위한 5개년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그동안 발표됐던 찬불가들을 합창곡으로 새롭게 편곡 정리하고, 새 찬불가를 만들어내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그 당시 김교수가 편곡곡으로 편곡한 찬불가가 100여곡이 넘는다고 그는 말한다. 전문가들이 연주할 만한 곡으로 다시 다듬어 냈고, 이 가운데 87곡을 선별해 찬불가 약보집<불교방송 찬불합창곡집1, 2>로 출판하기도 했다. 또 ‘한마음 있음 이어’ ‘길을 걷는다’ 등 다수의 찬불가도 새로 선보였다.

김 교수의 작곡 방법은 좀 특이하다. 일단 시김교수는 가사를 철저하게 시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를 받아보고, 그 시를 음미하며 명상에 잠긴다.

명상은 짧게는 한 두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씩 이어진다. 이렇게 명상을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 불현듯 떠오르는 악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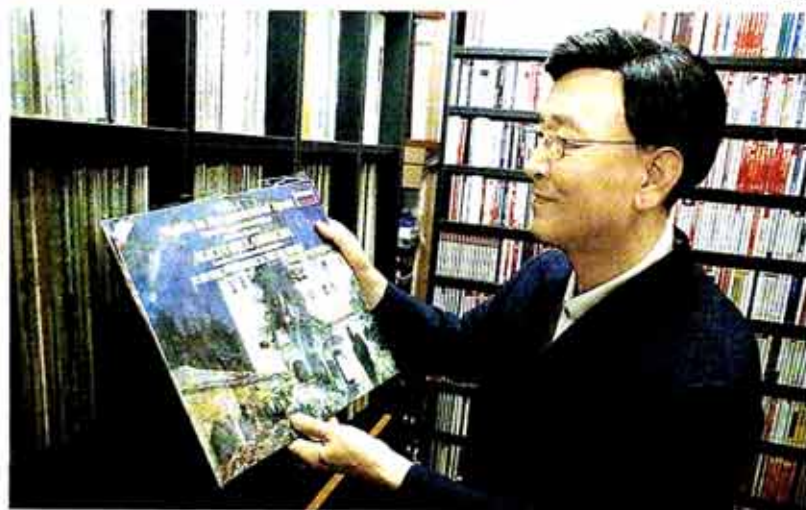
◀찬불가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만인이 사랑하는 우리 찬불가 창작으로 음악 인생을 회향할 것이라 말하는 김동환 교수.

이 다 완성된 후에도 김 교수는 그것이 자신이 창작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미 자신이 생각하기 이전부터 그 노래는 있어왔던 것이라 믿는다. 자신은 그 노래를 명상을 통해 전달받아 오산지에 그려내는 작업을 하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가 세상에 내놓은 찬불가는 총 70여곡.

김교수는 ‘한국 찬불가의 역사는 짧고, 아직 내용이 부족합니다. 찬송가의 그늘을 벗어나야 하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에서부터 전문가들을 위한 것까지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찬불가는 양적·질적으로 너무나 부족합니다.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기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많은 작품이 만들어져야 그 중에서 좋은 곡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불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들어드 ‘아, 이 음악 정말 좋구나!’ 하는 감동을 줄 수 있어야 찬불가를 통한 포교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10년 20년 내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제가 미력하나마 삼보불교음악협회에서 찬불가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이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김교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모아온 8천여장의 클래식 앨범을 소장하고 있다.



◀오산지에 그려내어 곡을 완성한다. 작곡의 과정에서 김 교수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가사 전달이다. 가사의 리듬을

잡아 가사 전달을 잘되게 하고, 자연스럽게 우먼서도 아름다운 선율로 환희심을 표현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곡

글=이은자 기자 elee@buddhap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po@buddhapa.com

##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도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도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인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은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